

- '16년말 현재,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.4%
-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·자차 등도 일정기준 충족시 운전자가 원하면 반드시 공동인수토록 하는 금번 제도개선으로, 92.7%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에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  - 특히, 이륜차의 경우, 현재 1.4%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.1%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다만, 현재 공동인수로도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중에는 가입 거절 때문이 아니라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가입률 증가폭은 예측이 어려움

\* '16년말, 자동차보험 전체 자기차량손해 가입률 65.1%

**<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가입대상 확대 추정(% , 보험개발원) >**

	개인용	업무용	영업용	이륜차	합계
'16년말 가입률	57.2	64.8	16.9	1.4	53.4
제도개선 후 가입 대상	91.1	94.9	94.6	90.1	92.7

**<예1> 생계형 이륜차에 대한 자손·자차 가입 사례**

◇ (현행) OO치킨 영등포점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(100cc) 1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공동인수되었는데,

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·자차 가입을 원했으나,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됨

◆ (개선) 개정된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, 자손·자차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토록 규정함에 따라,

'18.1.1.부터 A씨는 공동인수를 통해 보유중인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짐

**<예2> 소형화물차 자손·자차담보 가입 사례**

◇ (현행) 1톤 개인트럭을 처음 구입한 B씨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대인·대물은 물론 자기차량손해·자신체사고 보혀까지 가입하려고 했으나,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함

◆ (개선) 개정된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자손·자차담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토록 규정하고 있어,

'18.1.1.부터 B씨는 공동인수를 통해 보유중인 1톤 개인트럭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짐